

## 두꺼비 신랑담의 포스트휴먼 연구\*

김신정\*\*

### <차례>

1. 서론
2. 두꺼비 신랑담 속 이방인의 등장
3. 두꺼비 신랑담 속 포스트휴먼의 모습
4. 결론

### <국문초록>

이 글은 새로운 인간상을 꿈꾸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 사이의 새로운 관계성을 꿈꾸는 포스트휴머니즘의 성찰적 질문이 민담 안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살펴보려는 목적을 지녔다. 구체적으로 ‘두꺼비 신랑담’에 등장하는 두꺼비와 색시의 이방인적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이방인을 비롯한 타인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가 어떠한지, 또 어떠한지, 또 어떠한지 성찰하고자 하였다.

두꺼비 신랑담 속 두꺼비는 양가성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 사회에 편입될 수 없지만 스스로도 편입될 의지가 없고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마침내 천상적 존재임을 밝히고 하늘로 돌아가는 두꺼비의 모습에서 영원히 화합되지 않는 이방인의 모습이 그려진다. 이러한 두꺼비를 신랑으로 받아들인 색시는 허물을 벗고 사라진 두꺼비를 찾아 헤매게 되는데 자신이 속해있던 사회에서 벗어나 길 밖으로 자진해 나가면서 증여의 논리에 맞닥뜨려진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 상황에서도 색시는 두꺼비와의 재결연이라는 목표를 향해 충실히 걸어 나가며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두꺼비 신랑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이 글은 2024년 8월 20일에 열린 한국고전연구학회 제127차 하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맡아주시고 필자의 부족한 생각을 채워주신 토론자 김정은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올린다.

\*\* 호남대학교 AI교양대학 교양학부 교수

두꺼비가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천상적 자질과 뛰어난 외양을 통해 인간 사회에서 본질보다는 ‘사람다움’이라는, 서로 간의 상호작용에 의거한 추상적 가치 즉 남에게 보여지는 것, 합의된 소통양식에 주목하는 상황을 발견할 수 있었고, 두꺼비의 본질을 비롯하여 타자에 대한 계산 없는 수용을 보여준 색시의 모습을 통해 지구상의 인간과 인간, 인간과 비인간 간의 관계성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포스트휴먼의 문제의식을 상기할 수 있었다.

**주제어** 두꺼비 신랑, 두꺼비의 색시, 포스트휴먼, 관계성, 사람다움, 절대적 한대

## 1. 서론

SF의 효시로 알려진 소설 『프랑켄슈타인』에서 ‘괴물’은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창조물이다. 스스로 창조주가 되고 싶은 인간의 열망 속에서 괴물은 최고로 아름다운 것들의 조합을 통해 만들어졌으나 창조되자마자 괴물에게 극도의 혐오감을 느낀 인간에 의해 버려진다. 이때 괴물에 대한 박사의 감정은 포스트휴먼에 대한 현대사회 인간들의 감정에 비유되며 괴물의 지성과 감수성, 공감 능력이야말로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19세기 포스트휴먼의 특징이라고 해석되기도 한다.<sup>1)</sup>

포스트휴먼은 접두어 ‘post’로 인해 인간 ‘이후’의 인간 혹은 ‘탈’인간정도로 해석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형상으로서 예를 들자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등장한 로봇, 사이보그, 휴머노이드 등이 있다.<sup>2)</sup> 현대의 첨단과학기술

1) 안진홍은 ‘경계의 모호성’이 포스트휴먼의 특징이라고 하며 소설 <프랑켄슈타인> 속 빅터가 인간이면서 비인간성을 가지고 있고, 그가 만든 피조물(괴물)이 비인간이면서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인간중심주의(휴머니즘)에 대항하는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의 주제라고 하였다. 안진홍, 『『프랑켄슈타인』: 인간과 비인간을 함께 포용하는 포스트휴먼』, 『영미어문학』 134, 한국영미어문학회, 2019, 63쪽.

술에 의한 ‘인간 향상’에 주목하는 트랜스휴머니스트들과 비교하여 더 넓은 의미의 포스트휴머니즘에는 이러한 기술적 비인간들과 인간 혹은 비인간(동물,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새로운 기준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특히 여성학자 로지 브라이도티는 이와 관련하여 포스트휴머니즘의 주체이자 대상이 되는 포스트휴먼의 등장은 인간에게 포스트휴먼과 구별되는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은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만든다고 하며 인간중심주의적인 대답이 아니라 인간/비인간,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의 틀을 새롭게 짜야할 것을 요청한다.<sup>3)4)</sup>

프랑켄슈타인과 그의 창조물인 괴물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어쩌면 포스트휴먼의 등장은 현 시기뿐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이야기를 사랑하는

- 
- 2) 포스트휴먼이라는 용어는 제프리 다이치(Jeffrey Deitch)가 기획한 전시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새로운 진화 차원에 들어간 인간들을 지칭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생명공학과 컴퓨터 과학이 인간의 몸을 인공적인 방향으로 재구축하고 확장하는 힘을 주는 상황, 이를 통해 인간의 몸을 생물학적인 진화 너머로 인도하는 상황을 말한다. 조윤경, 「포스트휴먼과 기술적 상상력」, 『기호학연구』 26, 한국기호학회, 2009, 68쪽.
  - 3) 이 글에서 제시하는 포스트휴먼과 포스트휴머니즘의 개념은 로지 브라이도티의 논의에 따른 것이다. 로지 브라이도티는 포스트휴먼적 사유의 중요한 갈래를 1) 반동적 포스트휴머니즘 2) 분석적 포스트휴머니즘, 3)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으로 보고 있다. 이 중 브라이도티는 마지막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의 흐름에 자신이 속한다고 하였다. 그녀에 따르면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의 한 뿌리는 탈구조주의, 탈식민주의에 있고 다른 한뿌리는 생태학과 환경운동에 있다. 이정란, 『로지 브라이도티, 포스트휴먼』, 커뮤니케이션북스(주), 2017, 24~31쪽.
  - 4) 포스트휴머니즘은 근대적인 휴머니즘을 극복하고, 현대 과학기술 시대에 알맞은 인간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모색하는 여러 담론을 총칭한다. 구체적으로 트랜스휴머니즘은 과학기술을 이용해 노화와 질병을 극복하고 영생을 추구하는 단계까지 논의되고 있으며 신체를 포기하고 마음을 컴퓨터와 같은 인공물에 업로드하는 차원까지도 논의된다. 반면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을 주창하는 로지 브라이도티의 포스트휴먼 개념은 반휴머니즘에 근간하며 근대 휴머니즘에서 정의되는 인간·남성·백인·유럽 중심적인 인간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간 개념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진아, 「인류의 진화와 포스트휴머니즘 담론에 대한 논고-트랜스휴머니즘과 순자의 인간관을 중심으로」, 『倫理研究』 140, 한국윤리학회, 2023, 95쪽.

인간의 반성적 서사 안에서 늘 존재해왔을 수도 있다. 인간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온 성찰적 존재이기에 고전 서사 속에 등장하는 인간의 새로운 지향점으로서의 존재는 늘 있어왔을테고, 이제 우리는 그 존재들에게서 포스트휴먼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이 글은 새로운 인간상을 꿈꾸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 사이의 새로운 관계성을 꿈꾸는 성찰적 질문이 민담 안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우리의 옛이야기에서 찾고자 하는 목적을 지녔다.

이 글에서는 두꺼비 신랑담에서 그러한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두꺼비는 인간이 만들어 낸 창조물은 아니지만, 인간 세계로 스스로 걸어 들어와 인간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고자 한다. 두꺼비 신랑은 이방인으로서 허물을 자유자재로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실은 옥황 상제에게 벌을 받고 있는 하늘의 존재라고 말한다. 두꺼비는 인간 사회에 절대로 편입되지 못하는 존재이면서도 그 사회에 편입될 필요가 없는 존재이기도 하고 인간보다 못한 미물로서 대해지면서도 실상은 천상에서 내려온 신적인 존재임이 밝혀지는 등 양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존재의 태도와 이 존재로부터 발생하는 사건들의 의미에 관심을 쏟게 한다. 끝내 완전한 화합을 이루지 않는 두꺼비와 인간 사이의 갈등 국면에서 두꺼비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혹은 우리가 두꺼비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두꺼비 신랑담에 대한 기존 논의는 크게 두 가지 범위에서 다루어져 왔다. 두꺼비 신랑의 신적인 자질에 주목하여 신화와 민담의 관계성을 조망하고자 하는 입장<sup>5)</sup>과 심리적 성장 혹은 성적(性的) 성장을 의미하는 심리적 기제의 상징물로서 두꺼비와 두꺼비의 행위를 다루고자 하는 입장<sup>6)7)</sup>이

5) 최원오, 「<두꺼비신랑>說話의 神話的 性格」, 『온지논총』 1, 온지학회, 1995, 207~240쪽; 이태문, 「구렁덩덩 신선비와 「두꺼비 신랑」의 비교」, 『연민학지』 5, 연민학회, 1997, 411~455쪽.

6) 안미옥, 「두꺼비 신랑 설화의 구조와 의미」, 『청람어문교육』 22, 청람어문학회, 2000, 249~271쪽; 이원영, 「<두꺼비 신랑>설화 속 인정육구와 변신의 대응양상」, 『동방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기존 논의들을 참고하며 포스트휴먼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통해 두꺼비 신랑담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리하자면 이 글에서는 두꺼비 신랑담<sup>8)</sup>에 등장하는 존재들을 우리 사회의 ‘이방인’ 혹은 ‘타자’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서사적 세계 안에서 이들과 공동체 간 관계 정립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두꺼비 신랑담 속 포스트휴먼의 존재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학』 30,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14, 195~228쪽; 민선홍, 「민담 「구렁덩덩 신선비」와 「두꺼비 신랑」의 비교: 결혼 후 통과례담의 관점에서」, 『구비문학연구』 56, 한국구비문학학회, 2020, 5~34쪽; 김용선, 「〈구렁덩덩 신선비〉와 〈두꺼비 신랑〉 속 ‘허물’과 ‘아내 고행’의 의미-동물 토텐에서 기인한 거부장제로의 이행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69, 온지학회, 2021, 111~139쪽.

- 7) 브루노 베텔하임은 옛이야기가 성교육의 좋은 교육자료라고 하며 동물신랑담이 성의 억압을 해소하고 성에 대한 거부감을 성에 대한 포용적인 태도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동물신랑담의 전형적 특징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① 신랑은 왜 어떻게 동물로 바뀌게 되었는지 알 수 없음, ② 이렇게 만든 사람은 마녀이고 마녀는 징벌받지 않음, ③ 여주인공을 동물신랑과 결합시켜주는 이는 아버지로 여주인공은 아버지에 대해 순종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뜻에 따름-으로 정리하고 있다. 특히 ‘개구리 왕’ 이야기를 들어 공주가 개구리를 만나 자기중심적 성향에서 벗어나 인간적으로 성장해가는 동시에 개구리 왕자 역시 미숙한 존재에서 벗어나 인간의 모습을 돌아온 것이라고 해석한다. 브루노 베텔하임(김옥순·주옥 역), 「31. 동물신랑 이야기」, 『옛이야기의 매력2』, 시공주니어, 2018, 443~464쪽 참고.
- 8) 한 심사위원분께서는 본문에서 다루는 두꺼비 신랑담을 “뱀 신랑”이나 “구렁덩덩 신선비” 유형으로 봐야 할 것을 지적해 주셨다. 이에 대해 이 글에서는 두꺼비 신랑과 뱀 신랑이 태생에서부터 차이가 있으며, 두꺼비 신랑은 인간 사회에 스스로 걸어 들어온 낯선 존재인 반면 뱀 신랑은 인간의 뱃속에서 태어난 존재로, 이 글에서는 두꺼비 신랑의 이방인성을 강조하여 “두꺼비 신랑담” 유형으로 한정하여 서사적 의미를 다루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 2. 두꺼비 신랑담 속 이방인의 등장

이 글에서는 <한국구비문학대계(이하 대계)>와 <임석재 전집 한국구전설화(이하 임석재)><sup>9)</sup>에 실린 두꺼비 신랑담 8편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두꺼비 신랑담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 볼 수 있다. <임석재>에 수록된 세 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보자면, 평안북도1편 두꺼비 신랑(한병일 구연)을 하나의 유형으로, 평안북도1편 두꺼비 신랑(한명삼·안용집 구연)과 전라북도 두꺼비 신랑(南村吉俊구연)을 다른 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혼인 후 사라진 두꺼비 신랑을 찾으러 길을 나서는 ‘색시의 모험’ 화소가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색시의 모험 화소는 없고 혼인 전·후로 사람들에게 능력을 선보이는 ‘두꺼비 신랑의 신이한 능력’ 화소가 있다. ‘색시의 모험’ 화소가 있는 유형에서는 두꺼비 신랑의 능력이 두꺼비가 허물 벗고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로 한정되어 나타나는 반면 후자에서는 활을 쏘거나 괴력을 발휘하거나 신성을 구체적으로 발현하는 에피소드들이 다양하게 등장한다. <대계>에 수록된 두꺼비 신랑담도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하여 나누어 볼 수 있었기에 전체 두꺼비 신랑담의 목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두꺼비 신랑담 목록

연번	제목	두꺼비의 신이한 능력 화소		색시의 모험 화소	지역(구연자)	출처
		변신 외 능력	인간으로 변신			
①	두꺼비 신랑	X	O	O	평안북도 용천군 (한병일)	임석재

9) 임석재 선생의 『한국구전설화』 전12권은 『한국구비문학대계』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한반도를 망라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 자료가 풍부하게 수용되어 있다. 채집연대는 1920년대부터 90년대까지 70여년 간에 걸쳐져 있다. 최인학, 『70년 걸린 본격구전설화의 채록자료집 임석재전집 『한국구전설화』 전12권, 『한국문화인류학』 26, 한국문화인류학회, 1994, 332쪽.

②	두꺼비 신랑	O	O	X	평안북도 의주군 (한명삼) 선천군 (안용집)	임석재
③	두꺼비 신랑	O	O	X	전라북도 무실군 (南村吉俊)	임석재
④	두꺼비 신랑	O	O	X	경북 월성군 (하봉연)	대계
⑤	두꺼비 신랑	X	O	O	강원 원주시 (손난옥)	대계
⑥	두꺼비 신랑	O	O	X	경북 영덕군 (조유란)	대계
⑦	허물 벗은 두꺼비 신랑	O	O	X	경북 달성군 (임덕명)	대계
⑧	두꺼비 허물 쓴 사람	O	O	X	강원 양양군 (강학철)	대계

이해를 돕기 위해 <임석재>에 담긴 두꺼비 신랑담 세 편의 줄거리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각편①<sup>10)</sup>

옛날에 영감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두꺼비를 만난다. 영감은 두꺼비를 집으로 데려와 아들처럼 키운다. 두꺼비는 건넌 집 김정승 집에 장가가겠다고 한다. 영감은 김정승에게 혼사를 제안하고, 김정승의 세 딸 중 셋째 딸이 두꺼비와 혼인을 하겠다고 한다. 두꺼비는 영감에게 혼사에 쓰일 쌀과 물건을 갖다 준다. 두꺼비는 첫날밤 두꺼비 허물을 벗고 고운 새신랑이 된다. 어느 날 과거를 보고 오겠다고 하며 두꺼비 허물을 색시에게 주고 남에게 보이지 말라고 하지만, 색시는 언니들의 성화에 허물을 보여주고 언니들은 허물을 태워버린다. 두꺼비 신랑은 멀리서 그 냄새를 맡고 색시에게 다시는 오지 않는다.

색시는 신랑을 찾으러 집을 떠난다. 콩마당질하는 사람을 만나 콩마당질을 해주고 신랑이 간 길을 알게 된다. 또 팥마당질하는 사람을 만나 대신 팥마당질

10) 임석재 편, “두꺼비 신랑”(한병일 구연), 『한국구전설화집(평안북도편)』 1, 평민사, 1991, 35~38쪽.

을 해주고 신랑이 간 길을 전해듣는다. 색시는 또 길을 가다가 서답을 하는 사람을 만나 서답을 해주고 구멍으로 들어가란 말을 듣고 가서 신랑을 만난다.

신랑은 색시에게 자신과 살려면 물을 한독 퍼냈다가 도로 담아서 한독 채우고 범의 눈썹 다섯 대를 뽑아오라고 말한다. 색시는 물 한독을 퍼냈다가 도루 담아서 채워놓고 산골로 들어가 백호에게 가서 “어머니 나 왔어요. 눈썹 다섯 대 뽑아주세요.”라고 한다. 백호는 알겠다고 하고 색시에게 자신의 사타구니에 숨어 있으라고 말한다. 백호는 아들들의 눈에 있는 티를 꺼내주겠다고 하며 눈썹을 뽑아 색시에게 준다. 백호의 아들들이 뒤늦게 알고 색시를 뒤쫓아가자 색시는 백호가 준 물레를 던져 아들들을 따돌린다. 색시는 두꺼비 신랑에게 돌아와 잘 살았다.

• 각편②<sup>11)</sup>

옛날에 이정승의 소작인 영감 부부의 집에 두꺼비 하나가 들어온다. 영감은 두꺼비를 부뚜막에 넣어두고 밥을 주어 기르고 두꺼비는 영감 부부에게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른다. 두꺼비는 이정승네 딸에게 장가가겠다고 하고 부부가 만류하자 말을 전하지 않으면 어머니를 잡아먹겠다고 한다. 이정승네 집에 가서 그 집 딸의 방으로 들어갔지만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나온다. 두꺼비의 성화에 다시 한번 처녀에게 찾아가 말을 하니 처녀는 흔쾌히 장가 들라고 말하라고 한다. 두꺼비는 영감에게 글을 석 장 써주며 큰 강에 가서 물에 들어가면 저절로 길이 생길 것이고, 그 길로 가다보면 큰 기와집에 살고 있는 영감을 만날테니 그에게 이 글을 전하라고 말한다. 큰 기와집 영감은 글을 보고 자신의 아들에게서 온 편지라고 하며 예단과 돈을 많이 주었다. 두꺼비가 장가들고 나서 이정승은 간신들의 모함으로 살찌고 좋은 노루를 바치지 않으면 죽을 위험에 처한다. 두꺼비가 이야기를 듣고는 말을 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산신령을 만나 노루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산신령은 살찌고 좋은 노루를 보내주어 그 노루를 이정승이 조정에 바치자 왕이 칭찬한다. 이후 조정의 간신들은 이정승에게 대동강에 튼튼한 다리를 놓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였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두꺼비는 다시 말을 타고 대동강으로 가 용왕을 불러 대동강에 다리를 잘 놓으라고

11) 임석재(1991), 위의 책, 38~41쪽.



한다. 왕과 간신들이 다리 위에서 놀자 두꺼비는 다리를 건너차고, 그들은 모두 강에 빠져 죽는다. 두꺼비는 사람으로 변해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나라를 다스린다. 이정승이 두꺼비 왕에게 왕후를 구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자 자신의 색시가 왕후라고 한다. 잘 살다가 죽었다고 한다.

• 각편③<sup>12)</sup>

옛날에 늙은 영감 내외가 자식이 없음을 한탄하며 지냈는데, 영감이 낚시질을 하던 중 자신에게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 자신을 재차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는 두꺼비였는데, 두꺼비는 할아버지에게 자기를 데려다가 키워달라고 말한다. 영감 내외는 자식처럼 키우기로 한다. 몇 해 지나서 두꺼비는 이웃집 장자네 집에 장가들겠다고 고집을 부린다. 성화에 못이긴 할머니가 장자를 찾아가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자 장자는 화를 내며 종들을 시켜 할머니를 작두에 넣어 두 동강을 내버린다. 할머니는 두 동강이 나도 다시 붙어서 살아나고 살아나기를 반복한다. 장자는 할 수 없이 딸들을 불러 시집가라고 하고 셋째딸이 아버지 말을 듣겠다고 한다. 장자네 셋째딸과 혼인한 두꺼비는 첫날밤 신부 앞에서 두꺼비 허물을 벗고 이쁜 신랑이 된다. 두꺼비 신랑은 자신이 천상 사람이라며 우리가 부모한테 효도하고 살면 복받을 것이라고 한다. 색시는 그 말을 듣고 안심하고 시부모한테 효성을 다한다.

어느 날 장자네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장모는 두꺼비 사위를 푸대접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음식을 잘 받아먹는다. 사위끼리 활숨씨를 겨루게 되는데 전혀 못 맞추는 다른 사위들과 달리 두꺼비는 기러기를 쏘아 맞춘다. 두꺼비는 어느 날 영감 할머니 앞에서 천상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꺼비 허물을 쓰고 지상에 귀양온 것이고 이제 기한이 다 되어서 돌아가겠다고 하고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후 영감 할머니는 돈도 많이 생기고 아들도 낳는다.

위에서 소개한 세 편의 두꺼비 신랑담의 공통된 화소는 세 가지로서

12) 임석재 편, “두꺼비 신랑”(南村吉俊 구연), 『한국구전설화집(전라북도편)』 7, 평민사, 1993, 299~302쪽.

① 자식 없는 노인 부부가 두꺼비를 아들 삼아 기름 ② 잘 자란 두꺼비가 이웃집 색시(셋째딸)와 혼인함 ③ 두꺼비가 사실은 신적 존재가 두꺼비 허물을 쓴 것임 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각 편에 담긴 내용의 차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각편①에서는 허물이 태워진 것을 알게 된 두꺼비가 떠나고 서사의 후반부에는 색시의 모험이 이어진다. 각편②에서는 두꺼비의 능력이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 드러나는데, 구체적으로 색시의 아버지인 이정승이 조정의 간신들로부터 겪는 고초가 있고, 이러한 문제를 두꺼비가 해결해주는 흐름으로 되어 있다. 두꺼비가 인간 세상의 왕이 된다는 것도 이 각편만의 내용이다.

각편①에서 색시의 모험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것과 달리 각편②과 각편③에서 색시의 모험은 등장하지 않는다. 각편③에서는 이웃집에 혼담을 넣으러 간 할머니가 장자에 의해 살해 당하는데 작두에 두 동강이 난 할머니의 몸이 붙고, 다시 두 동강을 내도 붙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각편에서는 두꺼비가 하늘로 올라간 후 할머니가 부자가 되고 아들을 낳는다는 내용이 있다.

세 편의 이야기 중 각편②에서는 두꺼비의 ‘허울(허물)’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데 다만 장인이 자기 사위인 두꺼비가 인간 세상의 왕이 된 후 두꺼비에게 왕후를 들이길 권유하자 “셋째딸이 이미 왕후”라고 하는 두꺼비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두터비가 아니구 잠시 두터비로 변한 줄 알구 기빠서 그 후 잘살드랬년대”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 각편에서 역시 두꺼비가 인간으로 변신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원래 속성의 확인에 주변 사람들이 반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계>의 두꺼비 신랑담도 앞에서 정리한 세 가지 화소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으며 ‘색시의 모험’ 화소가 들어 있는 각편은 한 편 존재한다.

두꺼비 신랑담의 각편 서사를, ‘전도된 사건’(결핍)과 ‘정돈된 사건’(결핍

해소)<sup>13)</sup>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두꺼비의 결핍에 해당하는 ‘전도된 사건’은 각편①에서는 두꺼비가 어렵사리 혼인은 했으나 주변 인물에 의해 허물이 태워지고 그로 인해 두꺼비와 색시가 이별하게 되는 상황이고, ‘정돈된 사건’은 두꺼비가 사라진 후 색시의 노력으로 두꺼비를 만나서 그가 제시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재결연하는 상황이다. 각편②에서는 두꺼비의 혼인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데, 색시의 아버지인 이정승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 ‘전도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두꺼비가 이를 해결하여 인간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 ‘정돈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편③에서의 전도된 사건은 두꺼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장자 집에서 혼사를 제안한 할머니를 두동강 내고 할머니가 살아나자 다시 두동강내는 상황과 두꺼비가 혼인했으나 푸대접받는 상황이 ‘전도된 사건’이고 두꺼비가 활 솜씨를 드러내고 하늘로 가면서 이후 할머니가 부자가 되고 아들을 낳는 상황이 ‘정돈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두꺼비 신랑담의 두 유형은 ‘두꺼비의 사라짐’이 결핍인 유형과 ‘두꺼비의 능력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 결핍인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자의 행위 주체는 ‘색시’, 후자의 행위 주체는 ‘두꺼비’라 할 수 있다.

13) 그레마스(A.J.Greimas)에 따르면, 이야기는 시간적인 성격을 띤 시퀀스와 비시간적인 성격을 띤 시퀀스들로 이루어지는데, 이야기 전체를 최초의 주어진 상황(손해 혹은 결핍)이 최후의 상황(손해의 복구 혹은 결핍의 해소)으로 역전되는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최초의 상황을 ‘전도된 사건’으로 최후의 상황을 ‘정돈된 사건’으로 명명하고 최초 상황에서 최후 상황까지 가는 과정에서 행위주체(주인공)가 세 개의 시련(자격시련, 결정시련, 영광시련)을 겪는다고 하였다. 박인철, 『파리학파의 기호학』, 민음사, 2003, 153~154쪽.

〈표 2〉 두꺼비 신랑담의 전도된 사건과 정돈된 사건

	전도된 사건	정돈된 사건
각편①	두꺼비의 껍질이 태워짐, 두꺼비가 사라짐	색시의 노력으로 두꺼비를 되찾고 재결연함
각편②	장인어른이 위기에 처함	장인어른의 문제 해결을 해결하고 인간세상 왕과 왕후가 됨
각편③	두꺼비가 무시당함	두꺼비가 신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

각편①에서는 색시가 신랑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전도된 사건(결핍)이 되고 두꺼비와의 재결연이 정돈된 사건(결핍의 해소)이 된다. 각편②와 각편③에서는 두꺼비가 혼인을 하고 싶은 모습이 전도된 사건(결핍)이 되고 이후 색시와의 혼인,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된 상황이 정돈된 사건(결핍의 해소)이라고 할 수 있다. 각편①에서 신랑을 찾아 나서는 색시가 길위의 이방인이라면, 각편②,③에서는 색시와 혼인하고 싶은 두꺼비, 색시 집안의 사위가 되고 싶은 두꺼비가 인간 사회의 이방인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이방인으로서의 두꺼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이방인이 된 색시의 모습을 살펴 두꺼비 신랑담 속 이방인의 특징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1) 인간세계에 들어온 두꺼비

두꺼비는 자식이 없는 노인 부부에게 나타나서 대뜸 자신을 자식 삼아달라고 말한다. 그는 누군가의 ‘자식’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인간 사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공동체 내로의 완전한 편입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그의 등장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그는 두꺼비 껍질을 자유자재로 입었다 벗었다 하지만 완전히 벗지 않으며 특히 사람들이 그를 혐오하는 이유가 그의 외형에 있는데도 사람들이 있을 때나 낮 시간에는 오히려 그 허물을 절대 벗지 않는다. 또한 색시의 언니들이 허물을 태워버리자 그 냄새를 맡고 그 길로 인간 사회에서 사라진다. 두꺼비는 인간 사회에서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이라는 외피 속에 진짜 자신을

숨기고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정체성인 신성(神性)을 버리면서까지 이 사회에서 살아갈 의무나 필요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존재이다. 서사적 세계 속에서 두꺼비는 소수자이지만 보통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이인(異人)적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공간 이동 능력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두꺼비는 이 세계에서든 저 세계에서든 지낼 수 있는 경계인이다. 이러한 두꺼비의 특징 중 하나는 두꺼비에게 헌신하는 인물들(할머니, 색시) 역시 신적인 자질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신적인 능력의 분유적 전달<sup>14)</sup>을 보여준다.

(가) ...다음날 할머니넌 그 집이 가서 우리집 두꺼비가 장자네 집으로 장개오셨다구 허니 어쩔라우, 했다. 그렇게 장자는 이 말을 듣고 화를 벌컥 내자고 어디다 대고 그런 소리털 허남서 종달얼 불러서 이년얼 작두로 비여 죽이라구 했다. 그러서 종달이 달라붙어 이 할머니를 작두에다 너서 비여서 두 동갱이를 냈더니 다시 붙어서 살아났다. 또 비어서 두 동갱이럴 냈더니 또 붙어서 살아났다. 이렇게 여러번 작두로 비어서 두 동갱이를 내도 번번이 붙어서 사러나서 이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허고 장자는 딸을 불러서 두꺼비헌디 시집가라고 했다.<sup>15)</sup>

(나) ...노친네는 집으로 돌아와서...말하멘 우리집이 가난한데 네장은 무얼루 하구 전치는 멀루 하간 하멘 근심하느꺼니 두터비는 그걸랑 근심할 거 없다구 하멘 글을 석당 써주멘 “이길 큰 강에 가서 물에 들어테라. 그러면 물에 길이 환하게 트일터이느꺼니 그 길루 가문 고래 같은 큰 기와집이 즐편히 있는데 그 집 사랑에 들어가 그 집 녁감한테 글 한당을 내주라”구 했다. 노친네는 두터비

14) 분유적 전달(communication participative)은 그레마스의 설화 이론에 나오는 용어로 초월적인 세계의 발령자가 위계적으로 하위에 있는 수령자들에게 가치 대상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예컨대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정령에게 부탁하면 원하는 모든 재화를 얻는다거나 흥부가 박에서 재물을 얻는 경우가 있다. 입헌군주제에서 왕이 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해도 자신의 권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박인철(2003), 앞의 책, 200쪽.

15) 임석재(1993), 앞의 책, 300~301쪽.

말대루 강에 가서 글 한 당을 내티느꺼니 강물에 길이 환하게 나서 그 길루 갔더니 고래 같은 기와집이 즐편히 있어서 그 집에 사랑에 들어가 녁감에게 글 한당을 내주었다. 녁감은 그 글을 보구서 “아 우리 아들한테서 펜지레 왔구나”하벤 하인을 불러서 네장과 돈을 많이 말게 실려서 주었다.<sup>16)</sup>

제시된 장면(가)에서 볼 수 있듯 할머니는 두꺼비의 부탁으로 혼담을 넣으러 갔지만 장자의 노여움을 사서 몸이 두 동강 나고 만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할머니의 두 동강이 난 몸이 다시 붙고 또다시 붙는다. 이에 장자는 두려움을 느꼈는지 자신의 딸에게 시집을 가라고 말한다. 장면(나)에서 할아버지는 두꺼비의 지시에 따라 강물 속으로 들어가 글과 돈을 얻어온다. 보통 인간의 담력이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처럼 두꺼비와 인접한 인물들은 두꺼비의 지시를 받게 됨에 따라 두꺼비의 세계(신의 세계)에 소속된 자들과 같은 특성을 지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두꺼비의 신성은 전염성이 있으며 그러한 능력은 인간 세계와는 이질적인 특징이다.

이처럼 이방인으로서 두꺼비는 사람들에게 환대받는 존재는 아니지만 그러한 인간과의 이질성이 사실은 인간보다 높은 신적인 자질이었음이 밝혀진다. 두꺼비의 허물은 인간 세계에 편입될 수 없는 가장 큰 특성임과 동시에 인간 세계에 어떠한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신성의 표현이라는 양가성을 드러낸다.

## 2) 두꺼비를 찾아 집을 나오는 색시

두꺼비가 신의 세계로 돌아갔을 때(혹은 인간 세계안에 있는 다른 사회) 색시가 두꺼비와 만나기 위해서는 집을 나서야 하며, 두꺼비가 제시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만 한다. 두꺼비가 색시와 혼인하기 위해서 두꺼비의

16) 임석재(1991), 앞의 책, 39쪽.

능력을 먼저 보여줄 필요가 없었던 데 반해 후반부 서사에서 떠나버린 두꺼비와 재결연하고자 하는 색시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줘야만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다) “인제 내 남편하구 나하구는 영영 이별이다.” 이래구는,  
 그냥 수심을 하구 있다가서, 그냥 남자 복을 해 입구  
 그냥 얼굴에다 미약-검은 칠을 하구,  
 이래구는 배낭을 하나 짊어지구,  
 남편 찾는다구 정처없이 떠나버린 거야 인제.  
 그래니, 이 집에 가서 한 숟가락 얻어 먹구, 아니면 굶어 지구, 동냥을 하는  
 거지.  
 동냥을 하는데,  
 그 뭐 어떤 사람은 밥두 뭐 그냥 이렇게 획 던져주는 것도 있고,  
 쌀두 한 양재기 이래 폭 퍼서, 그냥 이렇게 담어 주면 좋지만,  
 아무렇게나 막 쥐가지구, 땅바닥에 흘리구, 막 그래며 주더래.<sup>17)</sup>

(라) “여보시 웬 고혼 새시방 가는 거 못 봤소?” 하구 물었다. 그러느꺼니 “이  
 마당질 다 해주문 대주갔소” 했다. 색시는 또 거기서 팍마당질을 다 해주었다.  
 다 해주느꺼니 델루루 갔다구 했다. 색시는 대주는 데루 하하 가느꺼니 어떤  
 낸이 서답을 하고 있었다. “여보시 일루루 웬 새시방 가는 거 못봤소?” 하구 물  
 었다. 낸은 이 서답을 다 해주어야 대주갔다구 해서 색시는 헛거는 감텡이루  
 감텡이는 흰 거루 흰 거과 감텡이는 알락달락허게 다 빨아 주었다. 그랬더니  
 그 낸은 “이제 내레제까치를 내리틸 적에 구녕이 뚜러디갔는데 그 구녕으루 들  
 어가 보라우” 하구 말했다. 그래서 색시는 그 낸이 제까치를 내레서 뚫러 논구녕  
 으루 들어가 봤더니 고기 새시방이 있었다.

17) 손난옥, <두꺼비 신랑>, [https://kdp.aks.ac.kr/inde/indeData temId=14&q=query %E2%80%A0%EB%91%90%EA%BA%BC%EB%B9%84%20%EC%8B%A0% EB%9E%91&id=POKS.GUBLGUBI.2\\_12745&pageUnit=20](https://kdp.aks.ac.kr/inde/indeData temId=14&q=query %E2%80%A0%EB%91%90%EA%BA%BC%EB%B9%84%20%EC%8B%A0% EB%9E%91&id=POKS.GUBLGUBI.2_12745&pageUnit=20), 접속일자 : 2024.05.22.

새시방은 색시를 보구 어드레 왔는가 하구 물으멘 나허구 살을레면 물 한 독 퍼냈다가 도루 담아서 한 독 채우구 또 범에 눈썹 다숫대를 뽑아와야 한다고 했다. 색시는 물 한독을 퍼냈다가 도루 담아서 채워놓구 산골에 들어갔다. 가는 꺼니 돌팡구 우에서 물레질을 웅웅하구 하는 백호가 있었다. 색시는 백호 곁에 가서 “오마니 나 왔수다레 오마니 나 오래비 눈썹 다숫대만 뽑아 주구레”하구 말했다. 백호는 그카라 하구 자기 사채기 안에 가 들어가서 있으라구 했다. 색시 레 백호에 사채기 안에 가 있으느꺼니 이즉만해서 큰아들 범이 들어왔다. 백호 는 “야 너눈에 티가 있다. 티를 꺼내주겠다”하멘 눈썹 한 대를 뽑았다. 둘째 아들 범이 오느꺼니 “니 눈에 티가 있다. 꺼내 주겠다”하멘 또 한 대 뽑았다. 그렇게 하나하나 뽑아서 다숫대를 뽑아서 색시에 주었다. 색시는 범에 눈썹 다숫대를 받아 개지구 갈라구 하던데 오래비들 까타나 오드렇게 가간 하느꺼니 백호 는 물레 토끼이를 주멘 이걸 개지구 가다가 급할 적에 내티라구 했다. 그래서 색시가 오던데 범덜이 뒤서 쫓아와서 급해서 색시는 물레 토끼이들 내텠다. 범 덜은 그걸 보구 “이거 우리 오마니 물레 토끼이다”그르멘서 그걸 주어 개지구 갔다. 그 짬에 색시는 글넉껏 뻘서 새시방한테 와서 잘살다가 신단디 꼬꼬....<sup>18)</sup>

색시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 안에서 살 때는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남편인 두꺼비 신랑이 떠나버리자 그를 찾아내기 위해 자신의 사회에서 이탈해 나오는 수고를 감수한다. 제시된 (다)장면에서 색시가 겪는 수난은 많은 신화에서 여성 인물들이 신으로 좌정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유사하다. 신화 속 여성 인물들이 집 밖을 나서는 순간 신화적 세계는 실제 세상보다 더 첼더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안에서 여성 인물은 온갖 고행을 겪다가 신이 된다. 대표적인 예로 원강암이가 남편 사라도령에 의해 재인장자집에 노비로 팔리는 모습을 들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두꺼비 신랑담의 색시에게도 집 밖의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색시는 자신이 가진 무엇을 타인에게 주고 그 보상으로

18) 임석재(1991), 앞의 책, 37~38쪽.



로서 남편이 떠나간 발자취를 계속 추적할 수 있었다.

제시된 (라)장면에서 볼 수 있듯 색시가 남의 논에서 일해주고 밭에서 일해주고 빨래까지 해주어서 만난 두꺼비 신랑은 물을 채웠다가 비웠다가 채우라는 명령을 한다. 또한 호랑이의 눈썹을 뽑아오라는 시험을 제시한다. 색시는 두 번 묻지도 않고 그 길로 물을 채웠다가 비웠다가 채운 뒤 호랑이 눈썹을 뽑으러 떠난다. 색시는 호랑이를 보자마자 대뜸 엄마라고 부르며 눈썹을 뽑아달라고 말한다.

길 밖의 세상은 색시라는 이방인에게 절대적 환대<sup>19)</sup>가 아니라 증여의 논리로서 색시를 대하고 있다. 색시 자신도 길 밖의 세상이 증여의 논리로 이루어짐을 알고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호랑이와도 그러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먼저 ‘어머니’라고 불러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색시는 자신이 눈썹을 부탁하면 호랑이는 색시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호랑이는 순순히 색시의 부탁을 듣고 자신의 사타구니에 잠시 숨어있으라고 말한 뒤 사람의 냄새가 난다는 아들들을 타일러 눈썹을 뽑는다.

색시가 두꺼비를 만나러 온 길에 만난 사람들은 색시를 증여의 논리로 대했으나 호랑이는 대가 없이 아들들의 눈썹을 뽑아준 것으로도 모자라 그녀에게 물레를 주며 어려운 순간에 물레를 던지라고 말한다. 색시가 뒤

19) “환대는 이방인을 나의 손님으로 맞이하여 호의를 베푸는 의식과 행동으로서 칸트가 말하는 환대의 개념은 일정한 기준과 제한을 세우고 그에 따라 환대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주인과 주인에 의해 환대받을 만한 사람으로 선택되는 이방인의 구조를 취하는 반면, 데리다의 환대는 이러한 모든 기준 및 제한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상호성이나 호혜성에 기반하지 않은 환대, 조건부를 넘어선 환대, 절대적 환대를 지향한다. ... 무조건적 환대는 절대적으로 낮은 이방인의 방문에 신원 확인이나 조건, 제한 없이 집으로 들이는 ‘신원을 묻지 않는 환대’이며 이것은 나를 타자로부터 보호하는 면역을 포기하는 전면적인 개방이자 주권성과 주도권을 포기하고, 나의 집에서 타자에게 무장해제 당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최 샘, 「새로운 성원권의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모색」, 『법철학연구』 25(2), 한국법철학회, 2022, 384~388쪽.

쫓아오는 아들 호랑이들에게 물레를 던지자 그들은 물레를 찾으러 가고 그 순간 위기를 모면한 색시는 무사히 두꺼비 신랑과 재회한다. 조건 없이 색시를 도와주는 호랑이의 모습은 서사적 세계 안의 인간 사회 속에서만 일어나는, 이방인에 대한 증여의 논리를 더욱 부각시킨다.

색시는 기존 사회에서 자신을 증명해낼 필요는 없지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두꺼비 신랑을 찾으러 가는 길에서 다른 사람들과 증여의 논리 하에 상부상조해야 한다. 목적이 뚜렷한 색시는 그들이 제시한 콩마당질, 팥마당질, 빨래 등을 해주고 두꺼비 신랑이 떠난 길을 알아간다. 어렵사리 만난 두꺼비 신랑역시도 색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상한 임무를 던져주고 이를 완전히 수행해내야만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운다. 이처럼 두꺼비 신랑담에서는 ‘두꺼비’라는 이방인이 인간 사회 속에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그를 조건 없이 받아들인 ‘색시’가 자신을 떠나버린 ‘두꺼비’와의 재결연하기 위해 길 밖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체득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한 사회에서 구성원들은 사회적 성원권이라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사회적 성원권은 법적인 지위라고 할 수 없으나 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 권리이다. 예컨대 여행 온 외국인이나 난민은 시민들로부터 방문객으로서의 친절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들이 사회 안에서 일자리를 찾으려 한다면 그 친절은 거두어지게 된다. 낯선 세계에서 온 존재들에게는 자국민들이 태어날 때부터 저절로 갖는 성원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성원권은 타인의 환대 속에서만 얻을 수 있다.<sup>20)</sup>

20) 성원권에 관해서는 인류학자 김현경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김현경은 이 논의에서 1960년대까지 미국의 많은 주에서 흑인들이 카페나 도서관 등에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점, 외국인이 시민권을 획득하여도 그 사회의 주류집단과 구별되는 한 외국인 취급을 받는다는 점을 들어 사회적 성원권이 법적 지위와 무관함을 지적한다. 한 사회 안에서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사회적 성원권의 기반이고 사람다울 수 있는 자격을 받아야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성원권은 인정투쟁이자 장소

그렇기에 많은 철학자들이 ‘환대’의 개념을 통해 이방인들의 존재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때 데리다는 이러한 상황에서 성원권이란 말하자면 증여가 필요 없는 관계, 이 세계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주었을 때 되돌려 주지 않는다는 ‘절대적 환대’의 개념과 등가이며 우리 사회가 공동체 윤리로서 이방인에게 이 절대적 환대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sup>21)</sup>

정리하자면, 두꺼비라는 이방인을 대하는 인간의 모습들은 두꺼비를 낯선 존재로 대하고 자신들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 두꺼비는 신이성을 발휘하거나 뛰어난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긴 하지만 시간이 되자 스스로 이 세계를 떠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다시 만난 색시를 대하는 두꺼비의 모습을 통해 이 사회의 엄연한 구성원인 색시가 낯선 세계의 존재를 받아들일 때의 어려운 과정이 필연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색시는 떠돌아다니며 남의 곶은 일을 해주고 길을 물어가며 다시 만난 두꺼비로부터 어려운 임무를 부여받고 호랑이로부터 살아남아 두꺼비와 재결연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색시의 모습은 이방인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야 한다는 시혜적 태도가 아니라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와 관계 맺음을 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정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방인으로서 색시는 두꺼비가 제안하는 황당한 퀘스트를 기꺼이 수행하고 두꺼비와의 재결연이라는 결말을 맞이한다. 색시의 퀘스트 수행은 우리 사회에 들어오게 된 낯선 존재들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우리는 그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그에게 허락

---

에 대한 권리이다. 김현경, 「2장. 성원권과 인정투쟁」,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 지성사, 2017, 57~72쪽 참조.

21) 김병곤, 「이주, 환대 그리고 민주적 반추」, 『인문사회21』 13(6), 아시아문화학술원, 2022, 52쪽.

되어야 하며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 3. 두꺼비 신랑담 속 포스트휴먼의 모습

#### 1) ‘인간다움’을 수행하는 두꺼비

두꺼비는 인간 사회 내에서 신이한 모습들, 비범한 지혜를 보여주고 인간을 도와준다. 그는 동물이기에 보통의 능력이나 동물로서의 생태적 특성으로는 인간 사회에서 무시, 혐오의 대우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 휴머니즘적 시각에서 그는 인간보다 열등한 동물이면서 동시에 동물로서 다른 종인 인간의 세계, 인간이 사는 공간 안을 파고드는 비정상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사적 세계 안에서 사람들은 두꺼비를 타자회합으로써, 두꺼비에게 ‘사람다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듯 하다.

여기서 이 ‘사람다움’이라는 용어에 관해서는 인류학자 김현경의 논의를 참고하고자 한다. 인류학자 김현경은 사람의 사람다움personality이란 우리 안에 있지 않다고 하며, 그것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태어났거나 사회화를 통해 획득해야 하는 본질이 아니며, 그것은 우리에게 있다고 여겨지며,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체하는 어떤 것, 서로가 서로의 연극을 믿어줌으로써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어떤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인격personality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상호작용 속에서 현상하는 것이며 고프먼<sup>22)</sup>의

22) 몸을 사회적 구성물로 보는 대표적인 연구자는 푸코와 고프먼이다. 푸코에게 있어 몸은 전적으로 담론에 의해서 의미가 부여되고 담론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다. 반면 고프먼에게 있어 몸은 만남, 사회적 역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심이 되는 요소일뿐 아니라 개인의 자아정체성과 사회정체성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클리스 쉴링, 임인숙 역, 『몸의 사회학』, 나남, 2011, 129쪽.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몸은 상호작용 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된다. 고프먼의 예시에 따르면, 경영자는 사업상 회의가 지루할지라도 권위자로서의 이미지를 위해 회의에 관심있는 것처럼 보이고자 한다.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행위는 성불평등의 상징이자

논의를 빌려, 얼굴을 유지하는 것(여기서는 사람다움을 의미함)은 상호작용의 목표라기보다는 조건이며 우리는 사회 안에서 행위자로 목표지향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동시에 사람으로서 서로를 인정하는 의례를 수행한다고 하였다.<sup>23)</sup> 이를 통해 서사적 세계 내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다움’의 기준과 척도는 두꺼비라는 이방인이 인간 사회 안에 수용되기 위해 보여주는 외형과 능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두꺼비가 인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때는 지혜로움, 활 잘 쏘, 괴력 등의 능력을 발휘하되 보통의 인간보다 월등해야 하고 외양적인 면에 있어서도 보통의 인간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때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지향하는 인간다움이 지 실제 인간들의 모습은 아니다.

(마) ...조정에 간신들은 이정승과 대동강에다 튼튼한 다리를 노라 하구 만일에 놓지 못하문 죽인다고 했다. 이정승은 이거이 근심이 돼서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었다. 두터비는 그 이유를 알아보구 그까짓 일 암것두 아니느꺼니 조금도 근심 말구 어서 일어나서 진지 자시라 하구 말을 타구 대동강으루 가서 용왕을 불러 내서 대동강에 다리를 튼튼하게 잘 노라구 했다. 용왕은 하인을 시케도 될 것을 장군님이 우정 오세십니까 하구 인차 다리를 잘 냈다. 왕과 간신은 이 다리를 둘러보구 이 정승 재간 용타 하구소러 그 다리 위에서 놀음 놀이를 했다. 그때 두터비는 다리를 거더쳤다. 그러느꺼니 다리우에서 놀던 왕과 간신은 모조리 강에 빠져 죽었다.<sup>24)</sup>

(바) 어느해 장자네 집이서년 큰 잔치릴 베풀고 사우덜도 다 불렀다. 두꺼비

---

불평등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행위이다. 고프만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 남성은 여성이 육체적 힘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 즉 정상적인 능력이 결여된 행위자로 취급한다. 이처럼 몸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요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관련된다. 크리스 설링(2011), 위의 책, 143쪽.

23) 김현경(2017), 앞의 책, 83쪽.

24) 임석재(1991), 앞의 책, 40~41쪽.

도 그 집 사우라고 처갓집 잔치에 갔다. 그랬더니 장모라는 이가 큰 사우덜헌터는 맛있고 좋은 음식을 큰 상에다 채려서 주었는데 이 두꺼비 사위한테는 깨진 그릇에다 아무렇게나 담아서 개밥 주듯이 주었다. 그리고 두꺼비는 조금도 게염치 않고 그 음식을 받아먹었다. 큰 사우들은 지 활숨씨를 자랑하고 싶어서 활쏘러가자하고 너른 강변으로 나갔다. 그러고서 하늘로 날아가는 기러기에다 대고 활을 쏘았다. 그러니 몇 번을 쏘아도 한 마리도 못맞췄다. 두꺼비는 어디 나도 한번 쏘이볼거나 하고 큰 사위 활을 빌려서 쏘았다. 그랬더니 단번에 기러기가 맞아서 떨어졌다.<sup>25)</sup>

(사) 두꺼비가, “부인, 부인.” 불러, 나가보니

“우리 첫날 밤에 하던 식으로 내가 들어두울테니 내 허물을 벗겨 달라.”구.

그래 만장 여레이(여럿이)보는데, 마당에 드러눕구 구녕을 거기 복판 구녕에다 손을 잡아 제치니, 세상 그렇게 잘난 사람이 없다 이기야.<sup>26)</sup>

제시된 (마)에서는 두꺼비의 괴력이 묘사되어 있다. 두꺼비가 자신의 장인어른을 괴롭히는 왕과 신하들이 노는 다리를 건너차자 왕과 신하가 모두 강에 빠져 죽었다는 장면이 나온다. 제시된 (바)에서는 혼인 후에도 색시 집에서 괘시를 받는 두꺼비가 다른 사위들과의 사냥 시합에서 뛰어난 사냥 실력을 보여주는 장면이 묘사된다. 다른 사위들이 기러기를 한 마리도 못맞추는 데 반해 두꺼비는 다른 사람 활을 빌려서 단번에 기러기를 쏘아 맞춘다. (사)는 두꺼비가 만천하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다. 외양의 경우 각편에 따라 표현은 조금씩 다른데 “세상 그렇게 잘난 사람이 없다”할 정도의 준수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두꺼비의 힘과 외양은 보통의

25) 임석재(1993), 앞의 책, 301쪽.

26) 강학철, <두꺼비 허물 쓴 사람>, [https://kdp.aks.ac.kr/inde/indeData?itemId=14&q=query%E2%80%A0%EB%91%90%EA%BA%BC%EB%B9%84%20%ED%97%88%EB%AC%BC&id=POKS.GUBL.GUBL1\\_5047&pageUnit=20](https://kdp.aks.ac.kr/inde/indeData?itemId=14&q=query%E2%80%A0%EB%91%90%EA%BA%BC%EB%B9%84%20%ED%97%88%EB%AC%BC&id=POKS.GUBL.GUBL1_5047&pageUnit=20), 접속일자: 2024.05.22.

인간들이 넘볼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것이 이야기에서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그런 인간다움(사람다움)을 완전히 갖추고 수행한다고 해서 두꺼비가 완전히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다. 두꺼비는 인간 세상의 왕이 되었으나, 왕후를 구하겠다는 장인의 질문에 왕후는 이정승의 딸이라고 말하자 그제서야 두꺼비가 변신한 존재임을 알았다는 구술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두꺼비의 신적 자질, 존재적 가치는 계속 의심받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상정한 ‘인간다움(사람다움)’에 대해 인간은 지적이든 신체적이든 인간보다 강인하고 우월하며 아름다운 특성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두꺼비 신랑담에서 보여주는 두꺼비의 행위와 능력은 인간이 자신에 대해 영원히 갖지 못한 모습이면서도 동시에 ‘인간다움(사람다움)’을 표상하기 위한 모순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 2) 환대하는 인간,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색시

그렇다면 그러한 인간다움에 속박되지 않는 영감 내외나 색시가 상징하는 비는 무엇일까? 그들은 두꺼비와의 마주침에 대해 약간의 주저함(혼인이 어렵다고 말한다거나 언니들을 이기지 못함)이 있으나 이 설화에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색시의 퀘스트 수행은 그러므로 두꺼비 세계로의 편입이 아니라 두꺼비라는 개별적 존재와의 마주침을 위한 것이며 그러한 노력을 통해 두꺼비와 완전히 결합하게 된다. 영감 내외나 색시는 두꺼비에게 바라는 것이 없다. 그들은 처음부터 두꺼비라는 존재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가 허물을 벗든 벗지 않든 ‘환대’한다.

어떠한 점에서 이들은 두꺼비보다 더 경계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은 두꺼비와 가까울수록, 두꺼비에게 다가갈수록 신적인 자질이 직접 그들 자신에게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두꺼비의 ‘비인간성’을 수행하는 존재들인가. 두꺼비를 통해 인간이 인간다움을 어떻게 규정하고 서사 안에서 어떻게 수행하는지 알 수 있다면, 색시와 영감 내외는 반대로

‘비인간성’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비인간성’은 보통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상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서사적 세계에서 말하는 비인간성의 가치는 무엇일까.

그들은 두꺼비와의 결연을 숙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렇다고 그를 온전하고 완전한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두꺼비 존재 그 자체로 보되 그들이 존재를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즉 두꺼비의 특성은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것으로 그들에게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 있다. 이 설화에서 인간다움(사람다움)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의 반대는 개별적 주체와 그가 행하는 구체적인 행위이며, 인간 사회에서의 두꺼비의 투쟁이 이 개별성을 지키려는 목적이 있듯이 영감 내외와 색시는 두꺼비의 조력자로서 역시 두꺼비의 개별성을 인정한다.

두꺼비가 인간이 생각하는 자신의 이상향, 완성형으로서 그려진다면 색시는 실제 실존하는 인간이 지향해나가는 인간의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진정한 포스트휴머니즘의 가치를 구현하는 인물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포스트휴먼은 인간 이후의 인간, 탈인간적 존재라는 정의가 있지만, 한편으로 포스트휴먼의 개념을 정의내리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 인간의 정체성을 스스로에게 묻는 화두이며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다양하게 질문하며 성찰하게 하는 개념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두꺼비가 ‘인간은 무엇인가를 묻게 한다면, 색시는 ‘인간은 인간에게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묻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설화는 동물과의 결연을 둘러싸고 집단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나가는지를 통해 한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에게 요청되는 암묵적인 집단 의식, 인간다움의 획일화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만한 단서를 준다. 두꺼비와의 연접에 놓인 존재들이 죽음이라든가 사회에서의 자발적 고립과 이탈이라는 극단성을 보이면서까지 두꺼비를 지키는 모습에서 개별적 존재로서 이해받음과 타자로서 환대받음이 진정한 인간의 조건이어야함을 역설



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두꺼비는 허물을 벗지 않는 한 인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비가시성을 요구받는다. 또한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장소성도 획득할 수 없다. 그러나 두꺼비는 천상과 지상을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장소성이라는 특성을 초월한 존재이다. 그는 외면의 특징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는 이방인이 되지만 이 외면상의 특징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서 지킨다. 그는 인간을 뛰어넘는, 인간이 꿈꾸는 인간다움을 수행함으로써 서사적 세계 내에서 수용되고, 서사의 결말에 이르러 색시와 결연한다.

색시는 인간으로서 자신을 숨기거나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존재는 아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집을 떠나기로 했으며 이때 색시는 자신의 존재를 두꺼비와의 결연을 통해서 확인받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길 밖의 사람들과 증여의 관계를 성립한다는 점에서 그는 새로운 사회(길 밖의) 구성원으로서의 성원권을 박탈당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색시는 자신이 만들어가는 삶의 행로 안에서 두꺼비가 제시한 임무를 수행하고 두꺼비와 재결연함으로써 가시성과 장소성을 재획득한다. 이러한 색시의 노력으로 두꺼비 역시 가시성과 장소성을 획득한다.

#### 4. 결론

이 글에서는 두꺼비 신랑담에 등장하는 두꺼비와 색시의 이방인적 특징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이방인을 비롯한 타인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성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서사적 세계 안에서 포착되는 이상적인 인간의 태도가 포스트휴머니즘적 문제의식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두꺼비 신랑담 속 두꺼비는 양가성을 가

진 존재로서 인간 사회에 편입될 수 없지만 스스로도 편입될 의지가 있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의 정체성을 고이 간직하고자 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끝내 천상적 존재임을 밝히고 하늘로 돌아가는 두꺼비의 모습에서 영원히 화합되지 않는 이방인의 모습이 그려진다. 이러한 두꺼비를 신랑으로 받아들인 색시는 허물을 벗고 사라진 두꺼비를 찾아 헤매게 되는데 자신이 속해있던 사회에서 벗어나 길 밖으로 자진해서 나가면서 증여의 논리에 맞닥뜨려진 모습이 나타난다. 그 상황에서도 색시는 두꺼비와의 재결연이라는 목표를 향해 충실히 걸어 나가며 구체적 존재로서의 두꺼비 신랑을 절대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두꺼비가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천상적 자질, 뛰어난 외양을 통해 인간 사회에서 본질보다는 ‘사람다움’이라는, 서로 간의 상호작용에 의거한 추상적 가치, 남에게 보여지는 것, 합의된 소통양식에 주목하는 상황을 살펴보았고, 두꺼비의 본질을 비롯하여 타자에 대한 계산 없는 수용을 보여준 색시의 모습을 통해 지구상의 존재 간의 관계성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포스트휴먼의 문제의식을 상기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임석재 편, 『任哲宰全集 韓國口傳說話』 1·7권, 평민사, 1991~1993.  
<https://kdp.aks.ac.kr/inde/gubi> (한국구비문학대계).
- 김병곤, 「이주, 환대 그리고 민주적 반추」, 『인문사회21』 13(6), 아시아문화학술원, 2022, 49~62쪽.
- 김용선, 「<구렁덩덩 신선비>와 <두꺼비 신랑> 속 ‘허물’과 ‘아내 고행’의 의미-동물 토렘에서 기인한 가부장제로의 이행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69, 온지학회, 2021, 111~139쪽.
- 김진아, 「인류의 진화와 포스트휴머니즘 담론에 대한 논고-트랜스휴머니즘과 순자의 인간관을 중심으로」, 『倫理研究』 140, 한국윤리학회, 2023, 89~113쪽.
-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민음사, 2017, 1~294쪽.
- 로지 브라이도티, 이경란 역, 『포스트휴먼』, 아카넷, 2023, 1~251쪽.
- 민선홍, 「민담 「구렁덩덩 신선비」와 「두꺼비 신랑」의 비교: 결혼 후 통과의례담의 관점에서」, 『구비문학연구』 56, 한국구비문학학회, 2020, 5~34쪽.
- 박인철, 『파리학과파의 기호학』, 민음사, 2003, 1~516쪽.
- 브루노 베텔하임(김옥순·주옥 역), 『옛이야기의 매력2』, 시공주니어, 2018, 1~512쪽.
- 안미옥, 「두꺼비 신랑 설화의 구조와 의미」, 『청람어문교육』 22, 청람어문학회, 2000, 249~271쪽.
- 안진홍, 「『프랑켄슈타인』: 인간과 비인간을 함께 포용하는 포스트휴먼」, 『영미어문학』 134, 한국영미어문학회, 2019, 61~81쪽.
- 이경란, 『로지 브라이도티, 포스트휴먼』, 커뮤니케이션북스(주), 2017, 1~113쪽.
- 이원영, 「<두꺼비 신랑>설화 속 인정욕구와 변신의 대응양상」, 『동방학』 30,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14, 195~228쪽.
- 이태문, 「구렁덩덩 신선비」와 「두꺼비 신랑」의 비교」, 『연민학지』 5, 연민학회, 1997, 411~455쪽.
- 조윤경, 「포스트휴먼과 기술적 상상력」, 『기호학연구』 26, 한국기호학회, 2009, 59~82쪽.
- 최섬, 「새로운 성원권의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모색」, 『법철학연구』 25(2), 한국법철학학회, 2022, 365~410쪽.

최원오, 「〈두꺼비신랑〉說話의 神話的 性格」, 『온지논총』 1, 온지학회, 1995, 207~240쪽.

최인하, 「70년 걸린 본격구전설화의 채록자료집 임석재전집 『한국구전설화』 전 12권」, 『한국문화인류학』 26, 한국문화인류학회, 1994, 319~333쪽.

클리스 쉴링, 임인숙 역, 『몸의 사회학』, 나남, 2011, 5~165쪽.

## ABSTRACT

## A Study on the Posthuman in the Tale of the Toad Groom

Kim, Sin-jeo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how the reflective questions of posthumanism, which dream of a new image of humanity and new relationships between living things on Earth, are embodied in tales. Specifically, by examining the otherness of the toad and the toad bride that appear in <The Tale of the Toad Groom>, I attempted to reflect on what human attitudes should be toward strangers.

The toad in the story is an ambivalent being who cannot be incorporated into human society, but is depicted as a being that has no will to be incorporated and rather seeks to preserve its own identity. In the end, the toad, which reveals itself as a celestial being and returns to the sky, depicts the image of a stranger who will never be reconciled. The woman who accepts this toad as her groom takes off its skin and wanders around looking for the missing toad. Toad bride voluntarily leaves the society he belongs to, is deprived of his membership rights, and faces the logic of 'give and take'. Despite this situation, toad bride faithfully walks toward her goal of reuniting with the toad because already she accepts the toad groom as a specific and individual being.

This article revealed The toad's heavenly qualities and outstanding appearance in the narrative world represents that in human society where attention is paid to the abstract value of 'humanity', visible interaction, and agreed upon communication patterns rather than essence of human individual. In addition, in this paper found on through the attitudes of the toad bride who provides absolute hospitality to others, we were able to recall the critical awareness of posthumanism, which seeks to re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beings on earth.

**Key Words** toad groom, toad bride, posthuman, relationship, personality, absolute  
hospitality

논문투고일: 2024.09.14.

심사완료일: 2024.11.07.

게재확정일: 2024.11.17.